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업도전의 매개효과-

이효선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agili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challenge-

Hyo-Seon Lee

Professor, Department of Airline Cabin Service Management, Far East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 학업도전,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학습민첩성이 학업도전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여 대학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와 충북의 4년제 대학 4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4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성실하게 작성된 398부의 설문 응답을 토대로 SPSS 22.0과 AMOS 22.0을 통해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학습민첩성은 학업도전을 매개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도전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도전은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므로 이는 학습민첩성은 학업도전을 수반할 때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대학의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학습민첩성과 학업도전 등의 변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학습민첩성, 학업도전, 진로준비행동,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agil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ademic challeng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challenge.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420 university students and well responded 398 were used for data analysis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arning ag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challenge. Second, academic challenge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academic challenge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learning ag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ore students enhance their learning agility and academic challenge, the more students develop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learning agility, academic challeng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iversity students,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해결책이 요구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통계청의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1] 기술혁신과

*This paper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Far East University in 2018.(FEU 2018R19)

*Corresponding Author : Hyo-Seon Lee (happysunnie@hanmail.net)

Received November 30, 2018

Revised January 2, 2019

Accepted January 20, 2019

Published January 28, 2019

경쟁심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커다란 부담과 불안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17년 대학생 진로교육 실태조사[2]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4년제 대학생들의 60%가 취업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 먼저 자신이 나아가길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는 이제 대학 교육과정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3].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을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삶에 분기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4].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행동은 신중한 자세로 미래의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2016년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약 71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210만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3]. 이렇게 불확실한 직업 환경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시절의 진로 준비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찰을 수반한다. 직업에 의해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므로 대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5].

진로교육은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6]. 진로를 준비한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생각하고 탐색하며 결정하는 것과 더불어 결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로준비행동은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등 개인의 내적 요인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7-9].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자기인식, 유연한 사고, 성찰 추구 등을 포함하는 학습민첩성과 학습참여태도를 나타내는 학업도전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의 진로교육에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습민첩성

학습민첩성은 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국내 연구는 시작단계이다[10]. 학습민첩성은 기업의 구성원이 새롭게 접하는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을 유연하게 하는 능력을 가리키며 이는 곧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핵심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11-12]. 학습민첩성이 뛰어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찾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구하며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물을 도출해 낼 가능성이 크다[12]. McCauley[13]에 의하면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문제나 기회를 만났을 때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며, 자기성찰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관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학습민첩성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자신을 위해 높은 수준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는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14]. 이러한 학습민첩성의 정의를 볼 때 학습민첩성은 기업의 핵심인재육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의 하나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2.2 학업도전

학업도전은 학생들이 지식의 탐구와 창의적인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학습활동 및 대학교육의 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다[15]. 학업도전은 최근 들어 학습참여의 한 요인으로 교수·학생의 상호작용, 대학의 지원 등과 함께 교육성과와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15-18].

학업도전은 원래 미국에서 대학생의 학습참여를 위해 개발한 진단도구(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NSSE)의 한 영역이다. 1990년대 후반에 개발된 NSSE는 2013년에 개정되었는데 이 때 학업도전을 구성하는 요인들도 수업준비, 학습량, 과제수준 등에서 고차원학습, 반성적·통합적 학습, 학습 전략, 양적 추론 등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상훈, 강민수, 홍지인[15]이 한국 대학생의 학습참여 진단을 위해 미국 NSSE 모델을 도입하여 타당화하였는데 이 때 양적 추론은 제외되었다.

배상훈, 강민수, 홍지인[15]은 학업도전은 학습자가 적

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고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려는 의지라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학업도전을 학습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으로 정의하기도 하며[19] 제시된 과제에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차원학습, 반성적, 통합적 학습을 통해 다양한 학습전략을 모색하여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20].

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탐색의 활동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로교육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봉환[4]이 진로준비행동을 학문적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다양한 변인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3,21-24]. 김봉환은 진로준비행동을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질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은 자신과 외부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며[25] 자신의 내적 특성을 파악하는 인지적 요인과 함께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행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과 학습민첩성, 그리고 학업도전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보다 효과적인 진로준비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체계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학업도전, 진로준비행동 간 구조적 관계를 실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 H1. 학습민첩성은 학업도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학업도전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학업도전은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공은 고려하지 않았다. 자료수집은 서울과 경기, 충북소재의 4개 대학의 교수를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4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각 대학 별로 회수하였다. 설문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 간 진행되었으며 총 411명이 응답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9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180명(45.2%), 여자는 218명(54.8%)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많았다. 학년의 분포는 1학년 101명(25.4%), 2학년 116명(29.1%), 3학년 80명(20.1%), 4학년 101명(25.4%)의 분포를 보였다.

3.3 측정도구

이 연구의 측정문항은 인구통계학변인, 학습민첩성, 학업도전, 진로준비행동 등 4개의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변인을 제외한 변인들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습민첩성은 Im과 그의 동료들[1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기인식, 성장지향, 유연한사고, 성찰추구, 행동변화 등의 5개 하위요인에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업도전은 Bae와 그의 동료들[16]이 미국 NSSE 모델을 도입하여 만든 한국대학생의 학습참여 진단도구 측정문항 중 학업도전 영역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1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Kim[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내용을 근간으로, 진로 결정 이후 대학생들의 실질적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여 개발되었으며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3.4 분석방법

이 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를 추정함과 동시에 관계의 크기까지 추정하고 측정오류를 반영한[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26]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에는 SPSS 22.0, AMOS 22.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먼저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은 Anderson과 Gerbing[27]이 제안한 2단계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이 연구에서 구성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모형 평가이며 2단계는 관찰된 자료를 연구모형에 적합시키는 작업으로 연구모형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5,000회의 Bootstrapping을 통해 도출된 값에 대해 bias-correcte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변인 기술통계 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의 평균은 학습민첩성 3.60, 학업도전 3.51, 진로준비행동 3.08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최소 .591에서 최고 .891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자료에 대한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응답 자료에 대한 정규성 확인을 위해 일변량 왜도와 첨도 절댓값을 도출하였다. 일변량 왜도 3이상, 일변량 첨도 절댓값 10이상인 경우 비정규성에 의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8]. 분석결과 일변량 왜도 절댓값 .009~.411, 일변량 첨도 절댓값 .045~.844로 나타나 자료의 비정규성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M	SD	Skewness	Kurtosis
LA1	3.81	.700	-.289	.305
LA2	3.89	.692	-.120	-.844
LA3	3.51	.751	.248	-.254
LA4	3.53	.697	.292	.077
LA5	3.27	.750	.374	.045
Learning Agility	3.60	.591	.411	-.039
AC1	3.41	.694	.165	.518

AC2	3.55	.682	.108	.193
AC3	3.52	.679	.142	.111
Academic Challenge	3.51	.643	.091	.609
CPB 1	3.32	.766	.009	.085
CPB 2	3.12	.896	-.096	.092
CPB 3	3.05	.753	.117	.679
CPB	3.08	.720	.094	.698

4.2 측정모형의 평가: 신뢰도와 타당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한 측정모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는 변인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지표가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나타나는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신뢰도 평가를 위하여 신뢰도 지수인 Cronbach의 α 와 합성신뢰도(CR)를 검토하였다. 타당도 평가는 구성개념 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각각 검토하였다.

먼저 Cronbach의 α 계수 도출 결과 학습민첩성 .884, 학업도전 .922, 진로준비행동 .844로 모든 변수가 .7 이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신뢰도의 경우는 학습민첩성이 .886, 학업도전 .923, 진로준비행동 .847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적합 판단 기준인 .6 이상으로 나타났다[29].

Table 2.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RW (SRW)	SMC (R^2)	Cronbach's α	CR
Learning Agility	LA1	.927(.707)	.500	.884	.886
	LA2	1.039(.802)	.643		
	LA3	1.185(.843)	.710		
	LA4	1.084(.830)	.689		
	LA5	1.000(.712)	.508		
Academic Challenge	AC1	1.000(.893)	.798	.922	.923
	AC2	1.006(.916)	.838		
	AC3	.959(.875)	.766		
C.P.B	CPB1	1.000(.809)	.655	.844	.847
	CPB2	1.154(.799)	.638		
	CPB3	.981(.808)	.653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변인 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r \pm 2SE$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30]. 해당 방법은 변인 간 상관관계 계수에 ± 2 표준오차

를 적용하여 하한 및 상한구간에서 1 포함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판별타당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이 모든 변인 간 구간에서 1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인 간 판별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r - 2SE$	$r + 2SE$
A.C	↔	L.A	.823 .935
A.C	↔	CPB	.582 .690
L.A	↔	CPB	.628 .732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설정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를 다음 Table 5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chi^2=161.35(df=42)$, TLI .950, CFI .962, RMSEA .085, SRMR .043 등 모형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적합성 판단 기준[18]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odel fit summary

	$\chi^2(df)$	TLI	CFI	RMSEA	SRMR
measured model	161.35(42)	.950	.962	.085	.043

4.3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 검증은 측정모형을 통해 적절성이 검증된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과 각 경로 값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습민첩성은 학업도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도전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 잠재변인 경로분석 결과는 Fig. 2와 같다.

Table 5. Inter-relations among latent variables

Path	b	β	CR	P
LA → AC	1.035	.889	15.277	.000
AC → CPB	.651	.660	15.262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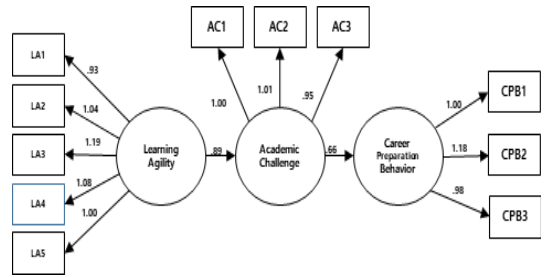


Fig. 2. Path diagram for the research model

각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이후 변인 간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학습민첩성은 매개변인인 학업도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889, p<.001$), 학업도전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60, p<.001$). 이에 학습민첩성이 학업도전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 ($.889 \times .660$)는 .587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학업도전은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습민첩성과 함께 학업도전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Direct, Indirect & Total Effect

	AC			CPB		
	DE	IDE	TE	DE	IDE	TE
LA	.889**	-	.889**	-	.587**	.587**
AC	-	-	-	.660**	-	.660**

** $p<.001$

5.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학습민첩성과 학업도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학업도전이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서울, 경기와 충북에 소재한 4개의 4년제 대학 학생들 4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민첩성은 학업도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beta=.889, p<.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학업도전도 증진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학업도전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beta=.660, p<.00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학업도전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에 행동도 증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변인간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습민첩성이 학업도전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도전의 매개효과는 .5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에서 학업도전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 학습민첩성은 주로 기업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에서 다루어져 온 변인이었으나 이 연구에서 학업도전, 진로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가 입증된 만큼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의 탐색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습민첩성을 구성하는 자기인식, 성장지향, 유연한사고, 성찰추구, 행동변화 등의 요인은 인지 및 행동적 요인으로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민첩성이 학업도전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 고취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보다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생의 학습참여를 진단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업도전은 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를 나타낸다[31]. 학업도전은 고차원학습, 반성적 통합적 학습, 학습전략 등을 하위요인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제까지는 창의성, 대학의 지원 등과 관련한 연구의 변인으로 이용되어 왔다[18,20]. 이러한 학업도전은 진로준비행동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습민첩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서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특히 학업도전의 하위요인 중의 하나인 고차원적 학습은 단순한 암기를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는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업도전감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교과과정의 개발 및 교육적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이는 그만큼 직업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이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 경기, 충북 지역 4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을 구분하여 결과를 비교한다면 전공별로 진로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학습민첩성, 학업도전과 더불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환경 요인들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한다면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더욱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Y. J. Seo. (2018. 9. 12). Joong-Ang Ilbo
<https://news.joins.com/article/22965496>
- [2]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7. 12. 24).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72853>
- [3] H. S. Lee. (2018).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Openness to Diversity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Unlearning.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205-212.
- [4] B. W.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ur of The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5] M. L. Savikas.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6] S. J. Kim. (2005).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 Hop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7] Y. H. Chang, J. S. Lee, & E. S. Sin. (2016). The Relation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3)*, 163-184.
- [8] M. H. Kim & J. K. Lee. (2017).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Perceived Occupational Basic Competences, Career Decision Level, Job Searching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3)*, 111-127.
- [9] M. S. Cho & K. S. Choi. (2007).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8(3)*, 1085-1099.
- [10] H. Y. Ryu & H. S. Oh. (2016). Learning Agility: Issues and Challeng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8(4)*, 119-145.
- [11] M. M. Lombardo & R. W. Eichinger. (2000). High potentials as high lead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39(4)*, 321-329.
- [12] C. H. Im, Y. E. Wee, & H. S. Lee.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earning Agil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9(2)*, 81-108.
- [13] C. McCaulley. (2001). *Leader Training and Development.* In S. Zaccuaro & R. Klimoski (eds.), *The Nature of Organizational leadership: Understanding the Performance Imperatives Confronting today's leaders* (347-383). San Francisco, CA: Jossey-Bassey.
- [14] M. London & T. Maurer. (2004). Leadership Development: A Diagnose Model for Continuous Learning in Dynamic Organizations.. In J. Antonakis, A. Cianciolo, & R. Sternberg (eds.), *The Nature of Leadership* (222-24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15] S. H. Bae & H. J. Kim. (2013). Influential Factors for the Academic Challenge of University Students: Mutual Impact of Learning Supportive Environment, Student-Faculty Interaction, and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1(4)*, 201-225.
- [16] S. H. Bae, M. S. Kang & J. I. Hong. (2015). Validation of the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NSSE) Model in the Korean Contex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4)*, 77-104.
- [17] S. H. Bae & J. I. Hong. (2015). Comparisons of Student Engagement Between Korean and US Engineer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5(3)*, 179-207.
- [18] S. H. Bae & J. I. Hong. (2013). Interaction and Supportive Campus Climate on Chinese Students' Active Classroom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3(6)*, 109-134.
- [19] G. D. Kuh. (2001). Assessing What Reality Matters to Student Learning: Inside the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Change, 33(3)*, 10-17.
- [20] Y. H. So. (2014). The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Relationships, Academic Challenge, and Creative Behavior: Comparing Major Field in Univers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4(4)*, 629-650.
- [21] S. I. Baek & K. M. Kim. (2011). The Effect of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of University Senio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2)*, 91-109.
- [22] M. J. Kim. (2016).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Regul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2)*, 89-107.
- [23] E. S. Kim & H. S. Lee. (2018).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Opportunity Inequality o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8(1)*, 115-136.
- [24] S. H. Cho & W. S. Kim. (2017).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Behavio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605-613.
- [25] B. Skorikov. (2007).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1)*, 8-24.
- [26] H. S. Lee & J. H. Im. (201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8.0/19.0.* Seoul : Jiphyunjae.
- [27] J. C. Anderson & D. W. Gerbing.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 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53-460.
- [28] R. B. Kline.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29] D. Gefen. (2003). Assessing Unidimensionality through LISREL: An Explanation and An Example.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2(2)*, 23-47.

- [30] C. Fornell & D. F. Lacker.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 [31] S. L. Payne., K. L. Klein., J. Purell, & G. R. Carter. (2006). Evaluating Academic Challenge Beyond the NSSE. *Innovative Higher Education*, 30(2), 128-146.

이 효 선(Lee Hyo Seon)

[정회원]



- 2011년 2월 : 중앙대학교 GHRD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전략학과(인적자원개발학석사)
- 2014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인적자원개발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다양성, 진로교육, 역량교육
- E-Mail : happysunnie@hanmail.net